

비대위 전환 친윤그룹·이준석계 당헌 당규 해석 놓고 충돌 전망

국힘, 비대위 체제 전환 급물살 위원장에 정우택·정진석 하마평 전당대회 시기 9월 중 가능할 듯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난 31일 사퇴 선언으로 여당은 사실상 비대위 체제 전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친윤계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를 시작으로 초선의원 32명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으로 가세한데 이어, 권 원내대표도 자리를 내놓으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권 대행은 애초 당헌당규상 요건 충족(당 대표 결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을 비대위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당 안팎의 압력이 높아져 자정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대행은 직무대행과 원내대표 역할을 분리해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원내대표 역할은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를 요구해 온 친윤 그룹에서도 권 대행의 원내대표 역할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당헌당규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비대위 전제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을 놓고 친윤 그룹과 이준석계에서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현행 당헌당규상 비대위위원장 임명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비대위 전환 시나리오도 물밑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감지된다.

친윤 그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콘셉트는 '전당대회 준비위' 격의 관리형 비대위다. 전당대회 시기도 이르다면 오는 9월 중으로도 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위원장 하마평은 당내 인사 중 정우택·정진석·주호영 의원 등 5선 이상 중진이나 전직 비대위위원장 등 원로들이 거론된다.

다만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예산정국 등과 맞물려 전당대회 시기도 내년 초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헌당규상 규정된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 대표의 결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상태를 '결위'가 아닌 '사고'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지도체제를 바꾸려면 최고위원 사퇴 등을 통한 당 지도부 해체로 인해 최고위의 의결 기능이 무력화돼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해야 당 지도부가 해체·붕괴 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당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최고위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이다.

우선 재적인원을 지도부 총원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고 과반인 5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9일 권 대표가 국회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재적인원을 7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징계로 부재중인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것이다. 이 경우 과반인 4명이 사퇴하면 된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이준석·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 최고위원 등 6명을 재적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선 201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저자들,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개혁도 아닌 당권탐욕에 제정신 못차린 나즈굴·골룸”

국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1일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양의 머리를 절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다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절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자들의 우선 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 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다 보는데 ‘my precious’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고 말했다.

나즈굴과 골룸은 모두 영화 ‘반지의 제왕’ 속 캐릭터로, 특히 골룸은 절대 반지를 ‘내 보물’(my precious)라고 외치며 탐욕에 눈이 먼 모습을 보

여준다.

여권의 지지율 급락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도 당권 다툼 양상을 보이는 당 일부 인사들을 반지의 제왕 속 캐릭터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앞서 여의도를 ‘그 섬’이라고 지칭, ‘양 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절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바 있다. 자신을 ‘내부총질 당 대표’라고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이 대표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과도 공개 충돌했다. 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의 연세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요구 등 당 지도체제를 놓고 혼란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이날 페이스북 글 역시 ‘윤핵관’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국회 문 열었지만...상임위 곳곳 충돌

행안위, 윤희근청문회 일정 못잡아 과방위, 민주 단독 ‘반쪽회의’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에서부터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던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의 경우 의사일정 협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행안위와 과방위에서 쟁점이 된 경찰국 설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가 적지 않아 앞으로도 팽팽한 줄다리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행안위의 경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부터 잡지 못한 채 여야가 팽팽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이재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다음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4일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윤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은 다시 안갯속이 됐다.

민주당이 경찰청장 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을 받은 류상영 총경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류 총경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워 청문회를 ‘경찰국 정쟁화’에 이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류 총경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또 윤 후보자를 만나 총경회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기발령과 회의 참석자 감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다음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청문회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과방위는 지난 27일 간사선임 회의와 29일 소관 부처 업무보고 회의를 모두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의 ‘반쪽회의’로 치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상임위 의사 일정부터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정문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 위반 94%가 외국인”

불법 공매도로 금융 당국에 적발되는 위반자 중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지난 31일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중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70% 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0년에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예년 수준인 만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7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천
H. 010-3605-5000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